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강진, 정약용 선생의 정원과 동백나무

지난여름 경기도 남양주시청이 보낸 메일 한 통을 받았다. 메일에는 함께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시청 직원분들은 내게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의 고향이 남양주라며 선생이 자연을 바라보며 쓴 시 '다산화사 20수'에 등장하는 식물을 그려 달라고 했다. 정약용 선생의 고향이 내가 사는 지역이라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가 식물을 특별히 좋아했으며, 식물에 관한 시까지 썼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였다. 평소 실학자로서의 선생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다산화사' 속 식물을 그리게 되었다.

시청 직원분들이 내게 건넨 종이에는 한자와 한글로 풀이된 시 전문이 적혀 있었다. 그림을 그리기 전 내가 할 일은 한자의 식물이 정확히 어떤 종인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인터넷에 이미 풀이된 자료들이 있지만 믿음이 가지 않았다. 과거와 현재 부르는 식물명이 같을지라도 실제 식물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는 옛 식물명에 관한 문헌을 뒤져 시에 나오는 20종의 식물명을 알아냈다. 동백나무와 차나무, 치자나무와 매실나무, 석류나무 그리고 천남성….

식물을 다 찾고 나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였다. 정약용 선생의 거처는 이 근처인데, 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식물은 남부 지방에 분포하는 난대수종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다산화사는 정약용 선생이 전라남도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쓴 시였다. 내가 사는 중부 지방에서는 온실에서나 이 식물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곧바로 시에 등장하는 식물들의 자생지인 강진으로 향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간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했고 그 중 10여 년을 만덕산 기슭, 지금의 다산초당에서 지냈다. 다산초당에 도착해 선생의 집 앞에 서니 그가 그토록 소중히 가꾸었을 원림이 한눈에 들어왔다. 시를 읊으며 상상만 했던 식물들, 동백나무와 차나무 그리고 대나무도 보였다. 정약용 선생과 나의 시대 간극이 느껴지는 듯 나무는 울창하고도 높게 자랐다.

선생은 다산화사 여섯 번째 연작에서 '산다 잎이 겹쳐 푸르른 숲을 이룬다'라고 썼다. '산다'(山茶)는 우리나라와 중국·일본에서 부르던 동백나무의 옛 이름이다. 특히 이곳의 동백나무는 개체수가 많은 데다 도시에서 볼 법한 수고(樹高)가 아니었다. 전국의 동백나무 50% 이상이 전라도에 분포한다고 하는 만큼 어찌나 제멋대로 잘 자랐는지 잎 또한 유독 색이 짙고 두꺼웠다. 이 정도의 잎 두께라면 건조한 겨울 동안에도 푸르른 숲을 이룰 것이다. 또 얼마나 붉고 탐스러운 꽃이 필까?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어떤 방법으로든 기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선생이 붓을 들어 동백나무를 본 사유를 시로 기록했듯, 나는 핸드폰 카메라를 들어 나무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다.

그가 꾸린 원림의 식물들을 감상하다 보면 동백나무와 차나무가 양옆에 서있는 오솔길이 보이고, 이 길을 따라 걸으면 백련사라는 절이 나온다. 백련사에는 더 큰 규모의 동백나무 군락이 있다. 나는 늦겨울이 되면 다시 이곳을 찾으리라 다짐했다. 이 정도 군락의 동백나무라면 겨우내 분명 매개동물인 동박새들이 찾아올 것이고, 붉은 동백과 연둣빛 동박새가 함께하는 모습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강진을 다녀온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다산화사 속 20종의 식물 중 10종의 기록을 완성했다. 과거 누군가가 정약용 선생에게 언젠가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게 될 텐데 무엇 하러 유배까지 와서 원림을 가꾸느냐 물었다고 한다. 그 말에 선생은 원래 인생이란 떠다니는 것이니 순간순간의 삶을 영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원림을 가꾸며 행복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이다.

나 역시 작업 중 힘에 부칠 때면 종종 눈앞의 식물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강진에 다녀온 후 생각이 바뀌었다. 떠다니고 떠다니며 만나고 헤어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나와 내 앞의 식물의 만남은 더욱 우연하고도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지금 눈앞에 있는 식물을 더 충실히 기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식물 세밀화가〉

의료칼럼

중년의 적, 간암

김 동 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원장

'코로나19'로 회식이나 술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중년 남성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건강 분야를 꼽으라면 간 건강일 것이다. 중년들은 대부분 해당 분야에서 일정 이상의 지위에 있거나 젊은층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아무래도 술 마시는 횟수나 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건강에 가장 해로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위치에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간암은 일단 발병하면 장기 특성상 다른 암에 비해 치료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후도 상당히 불량하다.

간암은 40~50대 남성 사망 원인 1위로 잘 알려져 있다. 간은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고 할 만큼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을 키우며, 나쁜 독성 물질을 해독한다. 하지만 간은 심하게 손상될 때까지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관리에 소홀할 경우 간암의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증상을 느껴 검진을 받거나 관리를 할라치면 이미 때를 놓쳤을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 간암이다.

간암의 원인은 우선 과도한 음주를 들 수 있다. 알코올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간 기능의 과부하로 간 세포 손상이 발생하면서 간경변증을 유발해 간암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흔한 간암의 원인은 바이러스성 간염이다. 알코올성 지방간이 아닌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질환이 원인이 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또한 간염, 간경변증, 간암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간암은 일반적으로 간세포에서 생긴 악성 종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악성 종양이 간 전체에 퍼지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질환이다. 간은 가슴안과 배안을 나누는 근육막인 가로막 아래 우상복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몸 장기 중 가장 큰 장기이다. 사실 어떠한 원인으로 간이 손상되더라도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만큼 회복력이 좋은 장기다. 그러나 간의 손상과 재생이 지속될 경우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되기가 쉽다.

이같이 여러 원인으로 간 기능이 저하되고 손상되어도 간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황달이나 복수 등의 뚜렷한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병기가 많이 진행된 경우로서 완치가 어렵고 사망에 이르는 환자들이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로, 간의 손상은 무섭게도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소화 장애나 윗배 통증, 근육통, 체중 감소, 잦은 피로감 등 작은 증세가 나타나더라도 결코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되며,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평소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는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초음파 검사 및 CT촬영 등으로 지방간이나 간암을 조기 발견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지방 섭취나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하며, 금연·금주하고 규칙적인 운동 등의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적이다. 또 B형 간염 항체가 없다면 예방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하고, C형 간염은 아직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도록 개인 위생 생활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습관화된 손 씻기는 지속적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면도기나 손톱깎이, 수건 등과 같은 물건은 가족이 아닌 개인 사용으로 한정해야 하다. 더불어 문신이나 피어싱도 자제하는 것이 만일의 감염을 막는 방법이다.

기 고

더 소소한 교육 인권을 위하여

박 혜 자
전 국회의원

조금씩 조금씩 세상을 바꾼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에 눈길을 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한 초등학생 덕분에 '살색' 크레파스라는 인종차별적 명칭이 없어졌고, 초등학교 출석부 번호를 남학생부터 부여해온 관행을 없어지게 만든 사람도 한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소소하게 살아온 우리 이웃들이 해낸 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바로잡은 사례들이다.

지난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었다.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올해로 73주년을 맞았다. 매년 인권은 강조되지만 인권이 걸어가야 할 여정은 아직도 멀다. 일부 학교이긴 하지만 출석부나 자리에서 남녀가 구분되고, 화장실의 휴지를 제공하지 않고, 장애 학생이 차별되고, 규칙을 위반한 문제 학생을 범법자 취급하는 인식 등 인권 문제는 비일비재하다. 현실 속의 크고 작은 인권 문제들이 우리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위 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에서 성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혐오 발언이나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이 개선되고 있는지 묻고 있다. 복장이나 외모, 전자기기 소지 등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살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반인권적 갈등이 여전하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를 교육 활동의 위축으로 보는 관점이다.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되자 교권이 축소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인권과 교권의 경계선에서 움츠렸던 교육적 고민이 충돌하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교육 현장의 '교육적 조치'는 모호할 때가 많았다. 소통은 막히고, 학생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으로 교육적 상황을 흔들 때 등장한 교사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을까? 관행으로 정당화된 현장 실습, 엘리트 스포츠를 위한 합숙 훈련, 다문화 갈등 등 그동안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던 체벌과 권리 침해가 점차 사라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차별적 의식으로부터 생기는 근본 문제는 더 노력해야 할 과제다.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자 일부 학생들에 의해 역기능을 부르는 사례도 있었다. 학생들이 교사들을 엮는 선제적 방어 행동은 교묘하게 악감정까지 갈고 진행되었다. 그렇더라도 교육 행정은 피해자 우선 논리 이외에는 그 어떤 방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드러냈다. 물론 모두 과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일 것이다. 노파심이 드는 것은 교사들의 활동이 아동 학대의 경계를 맴돌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감한 판단력보다 먼저 상황을 처리해야 할 때 자칫 말 한마디가 폭력이 될 수 있다. 교사들은 무지한 게 아니라 민원의 늪에 빠져 사건에 휘말리면서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다. 학생들이 자기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것만큼 교사들 역시 자기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 또한 인권 의식의 한계 때문이다.

민원의 형태로 등장한 사안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처 역시 마찬가지다. 교사와 학생을 갑을관계라는 기본 프레임으로 설정한 탓에 일 처리를 기울어지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징계라는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움직이게 되고 자신들은 자신들대로 업무 과신과 조직 보위에 갇히게 된다. 이것도 모두 균형을 잃은 행정력과 인권 의식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학생 인권 조례의 제정 취지인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 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되도록 하자"는 초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둘러싸고 학생들은 스스로 어떤 인권 의식을 정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학교 제도의 핵심 뼈대인 학교 교육 과정에는 얼마나 반영되었고, 교사들의 교육 활동은 얼마나 보장되었는지 고쳐 물어야 한다.

인권선언일을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 생기고 있는 오류에 대해 거듭 섬세하게 되묻자. 학생 인권 조례는 상징적 최소 장치일 뿐 교육 현장을 구체적으로 이끌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는 일은 구성원들의 몫이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고쳐져야 할 반인권적 사례를 개선하고 교사들이 편의성에 끌리지 않는 가운데 자발적 인권 운동으로 정착되면 최상이다. 인권이 생활 속에서 꽃피우기 위해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권 의식의 확장을 넘어 실천력 있게 뿌리내리길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 권력을 가진 행정의 균형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조례 수준에 못 미치는 인권 의식을 확장시키고, 인권 수혜자들의 자기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환경을 제도화하여 인권이 생활 속에서 꽃필 수 있도록 하자. 그렇지 못하면 인권은 여전히 교문 앞에서 멈추고, 허울 좋은 구호로만 남고 말 것이다.

社 說

'광주도 뚫렸다' 오미크론 확산 막아야

전남에 이어 광주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첫 감염이 무더기로 발생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집단 감염에 이어 이들이 다녀간 식당에서 감염자가 쏟아진 것이다. 이들은 모두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돼 지역 확산이 본격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에서 그제 처음 확인된 오미크론 감염 확진자 아홉 명 중 세 명은 동구 상수도 관련 공공기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었다. 사흘 전 직원 한 명이 인후통 등 의심 증세를 보인 뒤 첫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직원 33명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추가로 두 명이 확진됐다. 나머지 여섯 명은 이들 확진 직원들이 지난 14일 함께 이용한 남구 봉선동의 한 식당에서 나왔는데, 식당 종업원 네 명과 손님 두 명 등이다.

이들 확진자는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며, 모두 2차 백신 접종을 마쳐 돌파 감염 사례로 꼽힌다. 확진자 중 두 명은 무증상이고 나머지는 모두 경증으로 파악됐다. 방역 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식당과 확진자들이 거주하는 봉선동 일대에서 광범위한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들과 접촉했던 여덟 명의 확진자도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감염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확진 사례가 광주에서도 발생함으로써 지역 사회 전파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날 광주의 전체 신규 확진자는 요양병원·학교·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무려 106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용섭 광주시장이 밝힌 것처럼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서두르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연말연시 모임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가 생활 방역 수칙으로 강조하고 있는 목례 인사 생활화와 식당 내 개인 접시 사용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자립형 혁신도시 정책 수립 시급하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의 상생 발전을 통한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나주시를 비롯해 전국 열 곳에 혁신도시가 조성돼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경우 2014년부터 기관 입주가 시작된 후 8년 동안 인구가 증가하고 나주시 지방세와 총세입 규모, 지방교부세 등 재정이 증대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2017년 말 기준 나주시 인구 1인당 총예산 규모는 752만 원으로 순천시나 광양시보다 월등히 많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인 성과 이면에는 70%에 달하는 상가 공실률과 SRF(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싼 환경 문제 등이 존재한다.

그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혁신도시발전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는 혁신도시를 본래 목적인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 전반을 총괄할 기구로 '혁신도시 관리지원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특별자치시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세우기 위해 설립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하 행복청)과 비교된다. 행복청은 기반시설(인프라) 건설과 함께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생도시 자족 기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관련 조직인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예산과 인력은 행복청에 비해 각각 6분의 1과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만들어진 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의 공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본래 취지대로 자립형 혁신도시 정책을 수립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관리지원청' 설립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서울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전문 기업을 운영하는 어느 사업자와 얼마 전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조만간 광주에 지사를 내겠다고 한 그는 요즘처럼 즐거운 시기는 없었다며 싱글거렸다. K-팝, K-드라마, K-푸드 등이 이미 세계 곳곳에 알려지면서 유수의 외국 기업들이 BTS, 오징어게임, 불고기 등을 소재로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이다. 그는 유사 이래 대한민국의 최전성기가 바로 지금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암울함 그 자체였다. 110여 년 전 일본의 식민지가 됐고, 70여 년 전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으며, 60여 년 전만 해도 해외 원조 없이는 살길이 막막했던 최빈국이었다. 하지만 그 어느 국가도 해보지 못한 '압축 성장'으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면서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에 올라섰다. 경제적인 성과만이 아니라 음악·음식·영화·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 역시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다만 '압축 성장'의 그늘이 드리워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원과 인력이 한정된 가운데 효율적인 성장만 강조하니 대기업 및 대규모 플랫폼업체, 기득권 세력, 부유층, 수도권만이 그 혜택을 주로 누렸다. 고도로 성장할수록 간극 또한 고도로 벌어졌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안일했다.

부가 쌓일 만큼 쌓였음에도 더 증식하려는 이들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그 수단으로 삼았으나 선제적인 제어에 실패했다. 민간 영역은 질적·양적 측면에서 그 수준이 가파르게 향상되고 있는데 비해, 공공 영역은 과거와 큰 변함이 없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최전성기

차기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계 으뜸으로 이끌면서 한편으로 과거 '압축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 균형·분배와 함께 공공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임무가 차기 대통령에게 부여된 셈이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오로지 과거 검증과 네거티브만 반복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대한민국의 최전성기를 이끌 비전을 경쟁하며, 정책으로 대결하고, 격렬히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